



사설

正心大道 : 48살 외대의 특화발전

한국어국어대학교는 외국어를 특성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종합대학이다. 대학은 그 대학이 속한 나라 발전의 모델이고 전형이며 지표이다. 지난 48년 간을 돌아보면 외대의 발자취는 곧 나라 발전의 발자취라 할 수 있다. 외대는 60년대 이후 한국이 무역국으로 급성장할 때 그 최전선에서 나라의 세계화에 크나큰 공헌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외대는 국내보다 외국 즉 바깥(外)에 나가 보면 정말 큰(大) 대학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전 세계에 한국인이 진출한 도시에는 반드시 외대 동문들이 능률하게 일하며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있다. 외대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대학이다.

윤인배총장이 正心大道라는 글이 상징하듯이 외대의 설립자 윤인배 박사는 학교 발전의 기틀을 세울 때 이러한 인본으로 일관했다. 우리는 진리, 평화, 창조를 표방하고 정심대도를 걸으라고 한 장학사업을 윤리보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발전은 그 재정상 재단의 지원, 혹은 동문이나 은퇴교수를 또는 사회각층으로부터의 기부금과 학생들의 등록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대가 과거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던 외대에 중심의 단과대학이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 배울터에 경제, 인문, 사회, 자연, 이공계 등 문자그대로 대교의 종합대학이다. 이제는 이에 걸맞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이란 사회적 요구까지의 변화 속도보다 앞장서는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정보화나 세계화의 경향에 신속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21세기의 선진국 사회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앞으로의 대학은 교육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적자생존의 경계에서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이에 우리 외대는 더욱 독특한 대학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한편, 부모가 날 수 밖에 없는 분야별 확장을 추구하는 지름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과감하게 단과대학별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발전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경쟁력의 근간은 인적자원에 있으니 교수, 직원 및 동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비전 문헌이 고관료적인 행정체제로 인하여 좋은 발상이 합리적으로 안도될 수 없다. 셋째, 대학의 생명은 연구와 가르침이니 성실한 연구자는 분기기를 조형하여 학문의 업적을 내는 교수에게는 인센티브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또 학과별 교과과정을 교육시장 정계에 따라 대학 개편에서 훌륭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최고의 전문으로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능한 세계 모든 언어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의 특수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외대의 특장인 세계 언어 및 각국의 문화 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의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 끝으로 특히 외대의 인원을 맺은 모든 사회생활을 잘 보여서 모든 외대를 위해 무언가를 공헌할 수 있는 분기기를 조형하고 화합의 정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국어 사립대학처럼 동문회가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으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 유도하여 외대 설립취지에 맞게 정심대도로 학교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만이 48주년을 맞는 외대의 살 길을 명심하자.

서울, 도서관 사석화 문제 공청회

도서관 사석화(私席化)는 도서관 열람실의 자리에 개인물건을 놓아 자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사석화는 단순히 책을 놓아두는 것을 비롯해 심지어는 개인용컴퓨터, 커피, 슬러피, 매달이 수건에 이르는 것이 도서관학생위원회(도학위)의 설명이다.

공청회가 시작되고 도학위 위원장 김인식(서양·영어 97)은 "사석화되는 자리는 학생들의 통행이 없는 공부하기 편한 자리이다. 1, 2층의 자리가 사석화되면 일과로 피곤하다. 사석화는 도서관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이다"며 사석화의 심각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열린 공청회 때 "도서관은 공공장소다. 공공장소란 사석화를 일삼는 학생에게 원칙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목적을 밝혔고 성과적으로는 "물건치우기"로 인해 학내에 사석화 문제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고 학생들이 개인 물건을 치우기에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점"을 꼽았다. 도학위 위원장은 "사석화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물건치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해결방안·대안제시에서 김성국(사회·행정 92)씨는 "물건치우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사전 경고 후에 물건을 치우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다른 한 학생은 "도서관의 회칙개정을 하여 물건치우기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도학위 위원장은 "회의를 개정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나 명분 일기 위한 노력하겠다. 그러나 물건치우기는 사석화에 대한 마지막 대응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손경국(서양·영어 97)은 "도서관 학생개개인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자존감이 걸린 것이다. 명문은 수능점수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며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도학위 위원장은 "도서관 사석화는 개인의 의식에 관한 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문화운동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요즘도 사석화 되는 자리가 있어 조만간 불시에 물건을 치우어 예심"이라고 밝히며 또 한번 이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서울, 정총

2002년 상반기 정기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해오름식 이 지난 10일(수) 서울배움터 노천에서 열렸다. 등록금 투쟁과 민주총학생회 외대의 운영을 외대성이 개혁 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총회는 400여명의 학생만이 참여했다.

윤인배총장 상경투쟁

윤인배총장 총학생회가 지난 9일(화) 서울배움터에서 상경 투쟁을 했다. 본관 앞에서 양 배움터 총학생회 40여명은 함께 회의를 갖고 본관의 총투쟁의 재추진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 후 총투쟁의 명단에서 조규철 총장은 "8.8%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됐고 재단과 교육부의 결재도 이미 끝난 상태여서 환불은 어렵다"며 다른 복지 예산으로 들릴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김경수(중영·베트남어 96)은 "복지사업 및 개 마세로 등 등록금 책정위원회 한 것이 아니라"며 윤인배총장의 단속에 이어 서울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도 단속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윤인배총장 중앙집행국장 양경수(동유럽·폴란드 96)은 "총장의 재가 변경이 없다면 등록취를 다시 열 필요 없다"며 "총장 스스로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 이사장과 이사진, 교육부를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윤인배총장 총학생회장 윤승범(동유럽·헝가리어 96)은 "등록금 투쟁"을 미인어(96)은 단적으로 이 날 투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서울, 전학대회

서울배움터 2002년 상반기 전체학생 대표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지난 8일(화)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학대회는 △등록금 확인 △개회 선언 △민중의제 △회의진행체제확고 △회칙 개정 △간담회 및 의결 △스크린전선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으로는 △등록금 투쟁 및 학원 자주투쟁, 학생에 대한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산출 △총학생회 임명권, 특별기구 사업계획 인준 △총학생회 학원투쟁 등 투쟁 결의 △총학생회장의 한총련 의결 후부 등록금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전학대회는 총인 154명 중 과반수 이상인 82명이 참석해 성사됐으나 재학생사 후 토론안건에는 67명만이 남아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토론안건은 이를 후인 10일(수) 비상학대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 다시 논의했다. 이 날 학운위는 58명 중 29명이 참여해 성사됐으며 토론 후부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결과를 보면 15.0, 반대 13.3, 기권 1.0으로 총학생회장의 한총련 의결 참여가 학운위 별로 결정됐다.

15기 서총련 출범식 열려

지난 11일(목) 흥국대학교에서는 제 15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늦은 6시부터 '나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서총련' 낱자라는 주제로 개막한 위헌 출범식은 새내기 대입반 문예공연에 이어 '우리 하나같이 흥국의 바다로'라는 주제의 2부행사에서 △총학생회 회장공헌 △인리관공헌 △민중노래패 '우리나라' 축하공연 △'서총련' 삼행시 짓기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발다시! 서총련, 민족의 심장에 승진'을 물려다린 주제의 3부행에서는 △서총련 15년 영성상 시상 △민중노래패 '조국과 침묵'

축하공연 △총학생회연합 집행국 △조국통일위원회 출범 △서총련 의장 응시 순으로 진행, 대대놀이를 막을 내렸다. 이번엔 서총련 의장을 총학생회장 공헌을 축하하는 "출발! 2주에 대한 학생회출발"이며, 부회기 대회 등 여러사람들이 대총적으로 열리면서 준비된 것이 큰 성과"라며 "올해는 서총련 비야의 해가 되어야 한다. 운동대중화를 이룩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역군을 열어야 하고 민족주의의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공대 해오름식 열려

정보산업공과대학 정기 총회 및 해오름식이 지난 9일(화) 오후 4시30분부터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와 △간담회사 등이 진행되었으나 △과도한 동아리 불꽃이 공연이 뒤이어졌다. 이와 관련 정보산업공과대학 학생회장 최문성(전자공학 00)은 "후반부에 끝까지 함께 해준 학생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되는 공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학대 정기총회

서울배움터 사회과학대 정기총회가 오는 4월 16일(화) 오후 5시 30분에 대강당 1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학우여, 강들의 불꽃을 울려라!'라는 기치하에 △사회과학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총노선 인준 △민주총학생회에 대한 설명 △사회과학대의 화해를 지원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학우연구소' 특별기후 보고 △세계적 참여에 대한 논의 △메이데이 준비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대해 학생회장 조희정(행정 98)은 "학생회는 항상 학생중심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새나기를 위한 강연회

2002년 새나기를 위한 특별 초청 강연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O.S.K를 기획한 주최로 오는 4월 15일(화)부터 18일(수)까지 3일간 인문과 학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O.S.K를 단점으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스무살의 자유'라는 기치하에 첫날인 15일에는 홍세화씨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로 16일에는 손석준씨가 '한국사회의 정치 그리고 언론'으로 17일에는 김정우씨가 '현대의 진실과 오늘'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연회를 준비·기획한 권영삼(동양·인도어 97)은 "한국사회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의실현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대학생으로서 준비는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이 강연회와 자의의 준비는 매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7시, 16, 17일 오후 5시 30분.

불가리아 소피아대 비올체프 총장 강연회

지난 10일(수) 외국학중앙연구원 유덕환총장 서 한국동유럽발안학회와 동유럽발안연구소 공동주최로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보이안 비올체프(Bryan Bilekchew) 총장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동유럽발안연구소장인 김규진 총장과 교수와 개회식에 이어 폴란드 문학가이기도 한 보이안 비올체프의 '폴란드 안 코하노프스키(Jan Kochanowski)와 아담 미츠키비치(Adam Mickiewicz)의 문학세계'란 주제의 강연, 질의 및 질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에선 약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강연회에 참석한 박정(동유럽·폴란드어 97)은 "폴란드인이 아니더라도 폴란드를 공부한다는 데에 총장에게 깊은 통찰을 주셨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비올체프 총장은 11일(목) 유학하고 조규철 총장과 만나 불가리아와 신상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4월 마지막 상영작 4월의 테마시장은 유익하다.
타인의 취향
\*감독: 아녜스 자우이
\*출연: 장 피에르 바르르, 안느 알보르, 아녜스 자우이
\*곳: 서울배움터 대학원 1층 소극장(6104)
\*때: 4월 30일(화) 오후 5시 30분

'타인의 취향'은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을 절망하는 것, 사랑의 또 다른 취향을 개발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각자의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생활은 어떠한 관련이 있나.

'세계영화제-아메리카페르'가 세계영화제를 준비하는데 더 힘을 주고 더 많은 외대인의 참여를 바라는 의미에서 명칭을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자료제공-치지영(서양·독일어 01)

수요영화제 - 흥영학생회 주관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
\*감독: 스티븐 달드리
\*때: 4월 17일(수) 3시 30분, 5시 30분
\*곳: 윤인배기념 후폭관 4층 소극장

화양과 미래는 살아있다.
어느 날 권투 연습을 하던 빌리는 체육관 한 구멍에서 실시되는 빌리수업에 참석하게 되고, 그 수업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음악에 매료되어 버린다. 빌리수업의 선생인 필킨슨 부인의 권유로 간단한 레슨을 받게 된 빌리는 빌리의 매력에 빠져들고, 빌리의 천재성을 발견한 필킨슨 부인은 빌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도 잠시, 아버지의 형의 반항한 태도로 빌리의 빌리수업은 중단되 버리는데...

우리들이 5월 1일(수) 상영작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 2000)
\*감독:미미 레디
\*주최: 집 카버질, 헬렌 헛트

▶자료제공-권희정(동유럽·폴란드어 01)

인사말 (5) 글 그림 선화꽃
이런 동아리의 연수일정...
이런 동아리의 모임 장소...
이런 동아리의 자치권...
시간이 짧고... 장소가 좁고... 방장자 같은...

서울배움터

Table with columns: 구분,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연. Rows include 월, 화, 수, 목, 금 for each day of the week.

윤인배움터

Table with columns: 구분, 요일, 중식1, 중식2, 분식, 복음법, 뒷담/양식, 탕탕. Rows include 월, 화, 수, 목, 금 for each day of the week.

# 외대는 지금 '총장' 춘추전국 시대

우리학교 총장선거에 11명의 교수가 입후보했다. 교수협의회 총장후보 선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금) 입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하고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자가 5인 이상임에 따라 투표는 2차에 걸쳐 치러진다. 한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오는 30일(화)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한 범외대인 결의대회 및 총장후보 초청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19일(금)까지 외대발전학생주최위원회를 통해 총장후보들에게 질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받는다. 직인노조도 지난 12일(금) 직인위원회의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고 오는 17일(금) 선거관리위원을 선출, 선거일정을 확정짓고 직접적으로 총장선출에 참여할 계획이다.



1. 김경옥 교수 (사범·독일어교육)

1976년 8월 2일 부산출생  
1971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독어과 졸업  
1983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 독어과 교수  
2001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

1. 연구기반조성에 필요한 모금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2. 기여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3. 보직인사는 적재적소보다 공평의 원칙이 우선하도록 하였다.
4.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외대 재도약을 시도 하였다.
5.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전인교육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지향하였다.
6. 급변하는 글로벌경쟁에 필요한 학부교육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였다.
7. 학부생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다.
8. 연구실적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생진로지도도 교수업적에 반영시키겠다.
10. 외대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겠다.
11. 동문의 교수님들의 개인적 연고를 활용하여 학부졸업생의 취업을 촉진시키겠다.
12. 대학원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대학원 졸업생의 진로지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 이문배 교수 (경상·장보경영)

1949년 1월 5일 경기도 개성 출생  
1971년 2월 연세대학 응용통계학과 졸업  
1985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1985년 ~ 1988년 경기개발연구원 지문교수

1. 양 캠퍼스의 학사, 인사, 재정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균형적 발전을 실현
2.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의 합리적 운용
3. 연구 및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4. 강남과 경기 지역에 교직원 조양아파트 건설 추진
5. 김치진흥회의 재단 사유화를 막고 공익재단의 설립을 추진
6.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내역 및 교비사용의 공개와 용역의 투명성 제고
7. 퇴직금 정산은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8. 외대 강남캠퍼스 설립
9. 이문-본관연결, 기숙사건립을 위한 경회원 입주처의 매입추진  
왕인-학부생을 위한 고급 강의실 증설  
대학원-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논문지도도의 재정지원 확대
10. 현 직원수를 증경하고 자건갑수를 통한 예산 절감



3. 기연수 교수 (서양·노어)

1949년 12월 27일 출생  
1968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졸업  
1980년 ~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교수  
2000년 ~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어연구소 소장

1. 김치진흥회를 배제한 정이사체제를 구축
2. 전체 교수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였다.
3. 이문, 왕인 양 캠퍼스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
4. 왕인 캠퍼스 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5. 교수-연구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6. 환경탐방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다.
7. 학사관리를 엄격하고 지식정보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체제의 선진성과 유연성을 확보 하였다.
8. 등록금 예외제를 도입하고, 대학유형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등록금 설정방식을 제시 하였다.
9. 500여원의 학교발전 기금을 모금하였다.
10. 외대의 특성화, 명문화, 국제화를 이루어 반드시 외대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11. 직인 인사 전문, 책임보직제 실시



4. 박규호 교수 (법·법학)

1939년 11월 5일 서울 출생  
1962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독어과 졸업  
1976년 2월 연세대학 법학박사학위취득  
1988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 법과대학 교수

1. 정이사체제 구상을 위한 거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2. 임기 첫째에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 교수·직원의 파격적 봉급인상하였다.
3. 교수연구업적평가제도, 월배, 포상제도 시행하였다.
4. 이경계대학을 국가경쟁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산실이 되게 하였다.
5. 외대의 파과하고 참신한 구조조정 단행하겠다.
6.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5. 허영명 교수 (상경·경영)

1945년 2월 15일 서울 출생  
1969년 2월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1973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 상경학부 무역학과 교수  
1997년 2월 ~ 1998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 세계경영대학원 원장 겸 경영정보대학원 원장

1. 기금확충을 위한 외부활동에 전력하여 학교재원의 등록금 의존율을 현재 80%에서 60%선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겠다.
2.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외대발전의 중심으로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투명한 재단운영으로 각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단에 의해 참여해야 한다.
3. 우수한 교원의 지속적 확보와 연구 및 학습여건을 향상시키겠다.
4.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5. 서울배움터에 기숙사를 신축, 용인배움터에 기숙사를 확충하겠다.
6. 퇴직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구성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수렴방안을 거치겠다.

- 4/17(수) 직인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 4/30(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주최 초청토론회, 직인노조 공명분석 발표
- 5/3(금) 교수협의회 주최 총장후보 소견발표 및 1차 투표
- 5/6(일) 1차 투표 결과발표
- 5/10(목) 1차 초청토론회 용인배움터 오후 3시 30분
- 5/14(일) 2차 초청토론회 서울배움터 오후 3시
- 5/17(수) 총장후보 소견발표 및 2차 투표
- 5/20(일) 법인 이사회 추진
- 5/21(화) 교수협의회 결의대회, 해산



6. 원준근 교수 (국제지역대학원)

1952년 2월 10일 출생  
1976년 2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3년 9월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지역대학원 한국유럽학 회장·외교통상부 자문위원

1. 김중국 및 김치진흥회의 진인 절대 불가
2. 파과한 행정개혁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다.
3. 용인캠퍼스의 분리 운영 및 독자발전
4. 퇴직금 문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퇴직금 문제를 일괄에서부터 다시 조사하고 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처리방향을 결정
5. 외국어계열에서 서울배움터 (어문학), 용인배움터(지역학)이라는 개념 구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문의 기본방향을 정립함.
6. 학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2개 전공을 의무화함.
7. 교수협의회를 학회기구화함.
8. 대학협력부총장제와 여성부총장제를 도입함.



7. 박철 교수 (서유럽·서비아어)

1951년 8월 12일 출생  
1972년 한국외국어대 서비아어과 졸업  
1985년 한국외국어대 서비아어과 교수  
1999년 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 연구 교수  
2001년 미국 하버드대학 초빙연구 교수

1. 전체교수회를 정례화하여 민주적인 의사반영을 보장하겠다.
2. 용인배움터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정, 행정, 교육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겠다.
3.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경영제와 공개평가제를 도입하겠다.
4. 대외협력홍보를 담당하는 부총장직제를 신설하겠다.
5. 공대건 설 신축
6. 서울·용인배움터 기숙사 신, 증축 즉시 추진하겠다.
7. 학교발전의 의지와 재정능력을 갖춘 재단



8. 김명수 교수 (사회·행정)

1942년 2월 14일 출생  
1965년 2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1978년 8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2001년 2월 ~ 2002년 2월 서울배움터 부총장

1. 적재적소의 인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학교발전의 기초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내겠다.
2. 정이사체제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
3. 목표는 경쟁력향상, 원점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개편안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4.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
5. 용인에 총장을 두어 1학년 2중점제 추진 등을 통해 양 배움터의 균형발전
6. 단과대 및 각 대학원의 자율경영체제 구축
7. 일중심 팀경영제



9. 이준운 교수 (상경·무역)

1968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94년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 교수  
1994년 ~ 1996년 한국외국어대 기획조정처장  
1999년 ~ 2001년 한국외국어대 세계경영대학원장

1. 도덕성과 재력을 갖춘 재단 영입 추진
2. 용인배움터를 자립적 행정체제로 개편, 각 대학원 별 자율경영
3. 행정의 효율적개선,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 업무의 전문성 확보
4. 시설 및 교수 대폭 확충, 중요 중심 내실 서울배움터·학생회관 신축, 공동동,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기숙사 신축  
용인배움터·제2기숙사 신축, 도서관 건립
5. 교수 위상강화와 체제의전 수업을 위한 학과장 회의 신설
6. 한 교수 대 학생 비율 1:1에서 28:1 달성을 위한 대학교 교수 확충
7. 다양한 수시사업 및 사회적 교육확대를 통한 기금 조성



10. 안병만 교수 (사회·행정)

1941년 2월 8일 출생  
1964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75년 8월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1982년 2월 ~ 1994년 2월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겸 대학원장  
1994년 4월 ~ 1999년 2월 한국외국어대 총장

1. 재단 정상화를 위해 재단의 공명화, 육성의 지가 있는 재원 영입 추진, 독립화 등 세 가지 행태를 구성함과 연구·검토하고 협의하여 합의 도출하겠다.
2. 용인·학부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용인 배움터의 분리 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
3. 재단의 권리를 재단과 협의하여 일원화 방안을 강구, 교수인 사업으로의 전환방안을 찾겠다.
4. 주요 논점을 논의하는 열린 총장실(open)과 사이버 총장실(open)을 개발하겠다.
5.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및 기숙사, 용인배움터 중앙도서관과 제2, 제3기숙사 신축 추진.
6. 현재 직원을 재교육해 업무전문성 향상



11. 김태정 교수 (통상·일본어)

1941년 11월 20일 출생  
1969년 2월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졸업  
1982년 3월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교수  
1989년 3월 ~ 2001년 2월 한국외국어대 교수협의회 회장

1. 전 의대생의 외국어 구사능력강화를 위해 졸업 인증제도, 2개 전공 졸업장 취득,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 실질적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겠다.
2. 서울배움터·사범대학에 중국어교육과와 일본어교육과 신설
3. 용인배움터·용인대학에 한국어학과 신설, 정보통신대학에 사회학과와 문화인류학과 신설, 정보통신공학과에 디지털콘텐츠개발과 신설
4. 사이버대학 개설과 사이버 교육시스템 강화
5. 총장기 교수임용계획을 마련, 학과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신입교수 임용제도를 확립하여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25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원하겠다.

**외대학보사 수신기사가 되기 모집**

## 대학에는 '외대학보'가 있습니다

### 외대학보 기자가 되십시오

**신분 증명서**

자 격 02학년 재학기 등 대학신입에 관상있는 누구나  
모집부서 대학부, 사회부, 문화부, 학술투, 사자부, 인터넷부, 민화부  
원서접수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 기자실  
원서접수 4월 19일 금요일 5시까지  
문의 홈페이지 http://hubs.hekbo.co.kr  
서울02-961-4152 / 용인031-330-4112  
대표메일 ocdexpress@pharmail.net

## 기자 동상이몽

▲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하다. 대학을 통해 '서브'의 입장을 좁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경우라는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실은 '동상이몽'처럼 제각각일 때 심각해진다. 그 동안 12차체제에 걸친 논의해결된 등록금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둘러싼 등록금위원회와 총장간의 관계가 그 모양새다.

▲ 11차에 걸친 등록금에서 학생들은 6.8% 오른 등록금 총 비중이 10억원이고 용인배움터 도서관 설비비 5억 2천만원이 예산안에 부당하게 포함된 것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 등록금위원회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여 15억 2천만원을 예산에서 삭감할 것에 동의하고 등록금비율을 바꾸리 지르기도 했다.

따라서 12차 등록금에서 학생들은 6.8%오른 등록금 예산안에서 15억 2천만원을 환불 할 것을 요구할 총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조총장은 이미 1월초 재단이시장이 6.8% 인상된 등록금을 최종 결정했기에 환불은 불가능하고 복지안으로 풀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등록금이 현재 표류 중이다.

▲ 등록금위원회는 6.8%인상된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닌 계획된 금액임을 전제하고 12차에 이른 등록금을 집행해왔다. 하지만 조총장은 이와 다르게 복지안안을 제출하기 위한 논리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다른 '경제'를 갖고 등록금을 12차까지 끌고 온 셈이다.

▲ 조총장은 지난 9차 등록금과 결별해 열린 대학원위원회에서 용인부총장에게 등록금위원회의 권한을 전권 위임했다. 그 이후 그는 등록금위원회는 '복지안' 논리 틀이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금 학교측 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발로 시위를 벌일것이고 학생들은 조총장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정점으로 조류할 총장이 강요하던 '복지' 민부'의 인지를 그에게 불고 있다.

권철홍



# 외대는 장애인 출입금지 학교? 지체장애인 신성렬군의 학교생활

참피한 것도 아니잖아요?라며 밝게 웃으면서도 "미국에선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특별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남들과 틀리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전한다. 혼자서 기저에 던지는 질문. "우리학교에 장애인이 저랑도 또 있나요?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소나기가 오더니 곧 그렸다. 쌀쌀한 날씨를 좋아한다. 그와 명수랑으로 걸어난다. "외국서 오래 살았으니 여행 많이 했겠네요" 스치듯이 던진 질문에 놀라온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다. "10개국 넘게 여행했어요. 멕시코, 칠레, 홍콩, 하와이... 가장 좋았던 곳은 남극 근처에 있던 칠레 땅 마젤란이었어요" 기자가 가졌던, 장애인들은 몸조심하니까 때문에 활동적이지 않다는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 명수랑으로 돌아선 신군이 몸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 "조금 불안했어요" 불안의 요인은 1미터 정도의 작은 언덕. 하지만 그와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결코 '작은' 언덕이 아니라, 만약 그의 여행자가 우리학교같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면, 그는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까.

는 데 다리에 힘이 없는 많은 장애인들은 다리를 빌릴 수 없다고 어떻게 어떻게 발을 밟고 물을 내리는 손잡이를 누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몸 같은 일이에요" 발브를 누르기가 장애인들에게는 몸 같은 일이라니, 아득해진다. 현재 용인 배움터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후복관과 남자기숙사 1층에 하나씩 있는 것이 전부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양관, 어문관, 자연대, 공대, 도서관... 그 어느 곳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다.

교 통번역대학에 들어가서 통역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공부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웃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대학생활에 충실하고 싶어요" 누구나 꿈수 있는, 소박한 소망을 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리에 들고 싶고, 통기탄의 정을 느끼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고... 그는 기저의 6시간동안 동행하며 몇 번이나 "후회하지 않아요"고 말했다. 우리학교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제 학교의 차폐다. 신군이 기저에게 마지막으 보여준 기숙사 샤워실,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이 전혀 없이 샤워 중 넘어질 때도 종종 있었고 이에 바깥에 앉아서 샤워할 적도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학교사로 돌아와 충경후보로 나온 교수들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중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기저가 느끼 답답함의 정체를 무엇이었는지, 우리학교는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특수학교인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의 차폐다.

### 이제, 학교의 차폐다

104호, 그의 기숙사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자리에는 의자대신 휠체어가 자리잡고 있고 책상에는 전공서적과 여러 책들이 놓여져 있다. "공부 열심히 하네요" 슬쩍 건드려나 웃으면서 꿈이 통역사라고 밝힌다. 졸업하고 우리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통화한 지 2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12일(금) 오전 11시 50분경, 기저는 기숙사에서 막 나오려고 했다가 그에게 학생회관 앞에서 보라고 말했다. 빵(용인 배움터를 상징하는 서플라버스)을 타고 올테니 아무리 늦어도 20분안에 오겠지. 그로부터 25분이 지난 12시 15분에 피는 순간, 의아해하며 기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걸어 올라오고 있어요. 곧 도착해요. 걸어서? 비장애인도 숨이 차는 기저를 오르막길을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올라와 기저와 첫 대면을 한 신성렬(서유림·서반아이 02)을 만난 때는 12시 20분, 그가 기숙사를 나온지 30분만이였다.

### 승강기·엘프계단 전무한 학교

"빵차가 많이 다녀오면 좋겠어요. 아무리 일찍 준비를 해도 차가 지나가버리나..." 그는 빵차가 사람들이 좌 천재로 정류장을 몇 번이나 지나쳐 버려서 체념하고 걸어 올라왔다고 자조적음을 얘기했다. 잘 걷지 못하는 그에게 용인배움터의 넓은 공간을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빵차가 기숙사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는 기저를 배움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이동할 수밖에 없다.

기숙사에 살고있는, 2실의 늦깎이 대학생 신군은 소아비이다. 남보다 이른 7개월에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발의 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마비가 되어 그때부터 발을 잘 쓰지 못한다고. "그나저나, 4교시 수업이 빨리 들어가 할 텐데..." 온 몸게 차를 물고 기던 학생이 태워주어 때문까지도 편하게 갔지만 그가 수업을 듣는 교실은 4층, 게다가 승

강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없다. 왼쪽발로 잡고있는 지팡이를 뺀어 서너 계단 위를 다디고 오른쪽 지팡이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맞초반에 오르는 계단을 그는 4층까지 5분이나 걸려서, 그것도 맞베의 힘을 들어서 올라갔다. 40분정부터 수업준비를 한 그는 수업에 늦고 만다. "다른사람들보다 먼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학학거리며 그는 강의실에 들어선다.

김용영이 수업이다. 30명 정도의 학생 가운데 그는 참 열심히다. 가끔씩 단차지는 질문에 유창한 발음으로 정답을 말한다. 그는 칠레에서 12년, 미국에서 6년동안 살다가 작년 6월에야 귀국했다고 한다. "이런 게 가장 힘들어요" 수업이 끝나고 신군이 기저에게 책을 기방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다. "어려가지도 도움이 요청해야 하나가요" 어문관 식당으로 내려가 밥을 먹으며 그는 "외국에서 있을 때는 내가 장애인인게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3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라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아예 택시도 안 태워줬다고. 그때는

### '경매가 참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과방에 들르자고 제안했다. 'Aos'라는 전공스터디 학회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에게 기저가 생각해 주고 있던(편견일에 틀림없는) 장애인의 우물을 발견할 순 없다. 새터의 모교지에 빠지지 않고 어울려서 술도(소주라도) 맥주를 좋아한다) 잘 마신다는 그는 "장애가 자랑은 아니지만

### 재래식 번기, 공포의대상!

"딱 한 군데 봤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보았다는 기저의 질문에 신군이 대답하며 후생복지관으로 안내한다. 후복관 1층 화장실에 있는 장애인용 소·좌판기와 세면기를 가리키며 그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상태에서(발달을) 보게 할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죠" 그는 재래식 번기를 보자 이맛살을 찌푸리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재래식 번기에서 는 다리를 벌려야 하

시례 - 한국재활복지대학

## 장애인 편의 '빵빵'



지난 3월 5일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춘 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입학식을 가졌다.

올해 10개과 230명의 입학생을 받아 '한국재활복지대학'이란 명칭으로 문을 연 이 대학은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재활복지사들이 3년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2년제 전문대학이다.

재활복지대학은 장애인들을 위한 기숙사와 점자전자 노트, 특수버스, 점등 휠체어 등이 갖춰져 있으며 입학원금의 약 50%인 120명의 학생들에 장애인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다.

이 대학의 초대학장인 김형식교수 역시 장애인이다. 그는 1951년 한국전쟁 때 한쪽 팔과 부모를 잃은 뒤 장애인으로 사회에서 살아왔다.

이로써 이 대학은 장애인의 비율을 8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학생과 나머지 반의 장애인의 교우관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기!

잘못된 호칭	올바른 호칭
병신, 불구자, 장애자	장애인
정신인	비장애인
장님, 소경, 봉사	시각장애인
애꾸눈, 외눈박이	시각장애인
사람은, 사람뜨기	시사, 시사장애인
도리이, 비보, 얼간이,	정신장애인
등신, 백지,	정신지체
정신박약	정신지체
엎은뱅이, 절름발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편마	지체장애인
금사동, 골추, 골사	척추장애인
외팔이, 외팔뚝이	지체장애인(절단장애)
난쟁이, 땅딸보	왜소증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병아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패보	구개파열장애(언어장애인)

\* 자료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4.20

시혜와 동정의 껍질을 깨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 이동권
:: 교육권
:: 생존권
:: 시설비리 척결

:: 노동권
:: 참정권
:: 장애여성의 권리



# 용인 교통문제, 모니터 제도로 해결 시도

용인배출터 학원지구와 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에서 교통 모니터를 실시했다. 지난 3월 15일(금)부터 한달간 진행된 이 제도는 23명의 모니터 요원이 노선버스의 스쿨버스 전 노선을 직접 이용해 통학하며 운행시간, 승차인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이 학생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스쿨버스의 경우 승차를 요구했다. 스쿨버스는 사비를 들지 않는 직행버스여서 노선버스보다 빠르고 편리해 이용자가 많은데 비해 버스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생활환경조합 부위원장 장유리(서유림·영아 1)장은 "모니터결과를 보면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부와 협의, 2차기 버스노선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광화문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신성(동유림·노아 9)군은 "일찍이 기다려 친구자리까지 말아놓는 사람들이 때문에 서서오는 경우가 많다"며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늦게는 시간이 없어서 가고 일찍은 사람이 서서기는 것이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배출터에서 용인배출터로 오는 버스의 경우 좌석부족으로 얼마 전부터 스쿨버스를 가 한 대가 더 투입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좌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형스쿨버스를 더 선호해 소형버스는 항상 19개의 좌석이 다 차

지도 없게 출몰한다.

버스기사 이상의지는 "최대로 많은 학생을 태운 날이 12명"이라며 "똑같은 버스를 내고 앉아서 올 수 있고 15분가량 더 빨리 도착하는데 왜 학생들이 안 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형버스는 용인배출터 도착 후 학생을 돌아오기 때문에 대형버스의 노선인식과 태를 거치지 않고 직행해 이동시간을 단축했다. 소형버스의 투입으로 학생들이 서서 오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총무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소형버스도 대형버스와 동일할 것으로 이동해 중간에 타는 학생들을 태울 계획이다.

최호동 노선의 경우 지난 1일(월)까지 노선 버스가 생기기 전, 기존의 스쿨버스를 수요가 많은 곳으로 돌릴 계획이었으나 경기대원고속의 승무원부족으로 연기됐다. (주)경기대원고속 소장 김영규씨는 "있는 차도 가동할 정도로 운전기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회사에서도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생기는 노선버스는 1113번 여상버스도 간편역을 출발해 천호동, 중부고속도로, 우리학교를 거쳐 예배원까지 운행하며 2일(월)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의 중심로 인해 기존의 파란색 13번 일반버스는 없어진다. 또한, 2002년도 예산안에 포함 돼 있던 통학용 버스 2대 구입비 1억 6000만원도 천호동, 수원 노선의 중심로 인해 취소됐다.

스쿨버스의 운행은 올해 2월 경적입찰을 통해 10대(대형스쿨버스) 중 8대가 (주)경기대원고속으로 변경됐다. 총무처 이요일 주임은 "경기대원이 큰 회사이고, 운영보조금을 가장 싼 가격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변경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90년도부터 10년간 우리학교 스쿨버스 운영을 담당해온 (주)제일고속관광관리실장 박종훈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이긴 하지만 당 할변도 하지가 발생하거나 결함이 없었는 데 해나 경기대원으로 바뀌었다"며 "방중도 기사들 없애고, 차량정비, 자동차중합

보장까지 개강 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개강 1주일 전인 2월 22일(금)에서야 업체가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 학생은 "스쿨버스의 경우 모교자들을 위해 차량을 대여할 때 15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관공버스의 경우에는 2배인 30만원이 가량이 든다"며 "행여라도 경기대원고속의 독립적 학내 교통정책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ksophia@hanmail.net



## 교동모니터 결과 보고서

- 노선버스
  - 1) 1117번, 1117-1번  
배차 시간이 너무 불규칙적이며 사람이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한다. 그리고 모 한에서는 버스를 정대로 태워주지 않는다.
  - 2) 1500번  
언제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버시기 때문에 대명리서도 학교에 올 수 있었던 대명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강남 의자가 너무 많고 창문의 커튼이 너무 붙겠다. 이에 모니터 요원은 "요금은 조금 비쌀지 몰라도 스쿨버스를 많이 만들어서 하단까지도 최소의 시간안에 도착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 3) 13번  
버스가 많지 않고 좁게는 10-20분 가량, 최고는 55분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배차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 4) 1500-2번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버스가 다 차지 않더라도 출발시간에 맞춰 출발하면 좋겠다. 5분 늦게 출발한 것도 지각으로 이어진다. 학교서 꼭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도 세워달라는 곳에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학생편의를 위한 스쿨버스가 아닌가?
  - 5) 용인행  
예전보다 기사님이 많이 친절해 저했다. 간단하게 인사도 받아주고 모한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올라가신다.
  - 6) 수서·삼상행  
좌석의 간격이 좁아서 장시간 승차시 다리가 지진다. 버스요금을 낼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요금을 내는 제도를 바꿨으면 한다. 에어콘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 7) 수원행  
수원행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타서 (대략 50명) 다른 곳에서 타는 학생들은 항상 서서 오는. 생내온도 조절이 잘 됐으면 한다. (뒤에 서서 오는 학생은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 한다) 수지를 출발해서 학교로 오는 버스가 생긴다면 늦게 타는 학생들도 알아서 올 수 있고 경유지가 줄어들 것 같다.
  - 8) 이문행  
지리가 불편해 소형스쿨버스에는 10명도 타지 않는다. 정원을 다 채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9) 천호동행  
깜깜이도 안키고 잘지지도 왔다갔다 운영을 하신다.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한다. 그렇지만 내리는 학생마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 자료제공: 생활환경조합 부위원장 장유리(서유림·영아 1)

#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전' 함께 가실래요?



### 2002 아리랑 대 축전 예정보도

오는 29일(월)부터 6월 29일(토)까지 2달간(1일 1회 공연 일요일 제외) 평양의 5·1경기장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이하 '아리랑')이 열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이면 모두 아는 '아리랑', 흥하듯 '아리랑'이라 하면 한국인들의 예환과 한, 저항정신을 대변하는 노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민족을 묶었다는 '아리랑'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어떤 것일까? 이번 열리는 '아리랑'은 북한에서 80년째 열리는 집단체조(대스케이프)이다. 북한에서 집단체조는 광복직후부터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사이다.

1946년 5월 '소년들의 연합체조'에서 시작된 집단체조는 지금까지 약 84개의 작품이 만들어졌으며 총 900여회에 걸쳐 상연. 매년 약 1,600만명이 관람한다고 한다. 이렇듯 북한에서의 집단체조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 기념행사이다. 하지만 이번 열리는 '아리랑'은 밝은 낮이 아닌 어두운 저녁에 펼쳐져 조명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거대 영상 배경막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형식을 도입한다. 출연자의 규모도 예술인 천, 학생들 10만 여명으로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행사이다.

지난 2000년도부터 기획 추진된 이번 '아리랑' 공연은 수용인원 15만명의 5·1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총 4개의장과 3장, 종중,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을 둘러보면 2장 2경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1500여명의 유희연성과 인민학교(초

등학교) 1학년 꼬마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3장 3경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연하여 평양의 아경을 형상화한다.

정체 상연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지금껏 우리가 들어오던 정지적 집단체조 대신 민족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조선신보'는 현재 내 이상 공개된 종합연습 장면을 "선남, 선녀가 극부드럼(소프트프라이즈)에 비쳐 지면서 하늘(무대 오른쪽에서 내려오는데 경기장 전체가 밝아진 순간 그 모습이 없어진다"라며 '이성남폭포'라는 장면의 신비로움을 보도했다. 또 "1천 수백명 무대출연자들이 흰 천을 가지고 눈보라를 형상화하는가 하면 푸른 천을 가지고 두만강의 사나운 물결을 형상화한다"며 장미로움을 전했다.

현재 '아리랑'의 준비상태는 흥연습을 마치고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있으며 2주만 남고 해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과 함께 평양시가지는 갖가지 깃발과 환영 구호, 대형 그림판들이 세워졌고 관광객이 목을 숙삭식 준비에 한창이다.

월드컵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아리랑축전은 단순히 행사관람과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 세계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장미가 된다.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아리랑 축전이 발표만 들어오던 북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기회를, 더 나아가서는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김종원 기자

# 용인, 아리랑축전 준비위원장 단장 김민영(자녀·화학 9)을 만나 북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행사기간은 2달이다. 행사참여는 언제든 할 것인가  
우선 준비단은 4월 22일 개막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 뒤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모은 뒤 5월 중순쯤 반복 할 예정이다.

아리랑 축전으로 기대 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바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북한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행사가 잘 치러져 경의선 북한사업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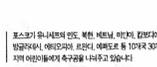
학생들에게 한마디  
앞단 우리 지식을 배우는 대학생으로서 북에 대한 편견만 사고 대신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함께 가서 관광관람도 하고 아리랑축전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었으면 한다.

김민정 기자 bypress@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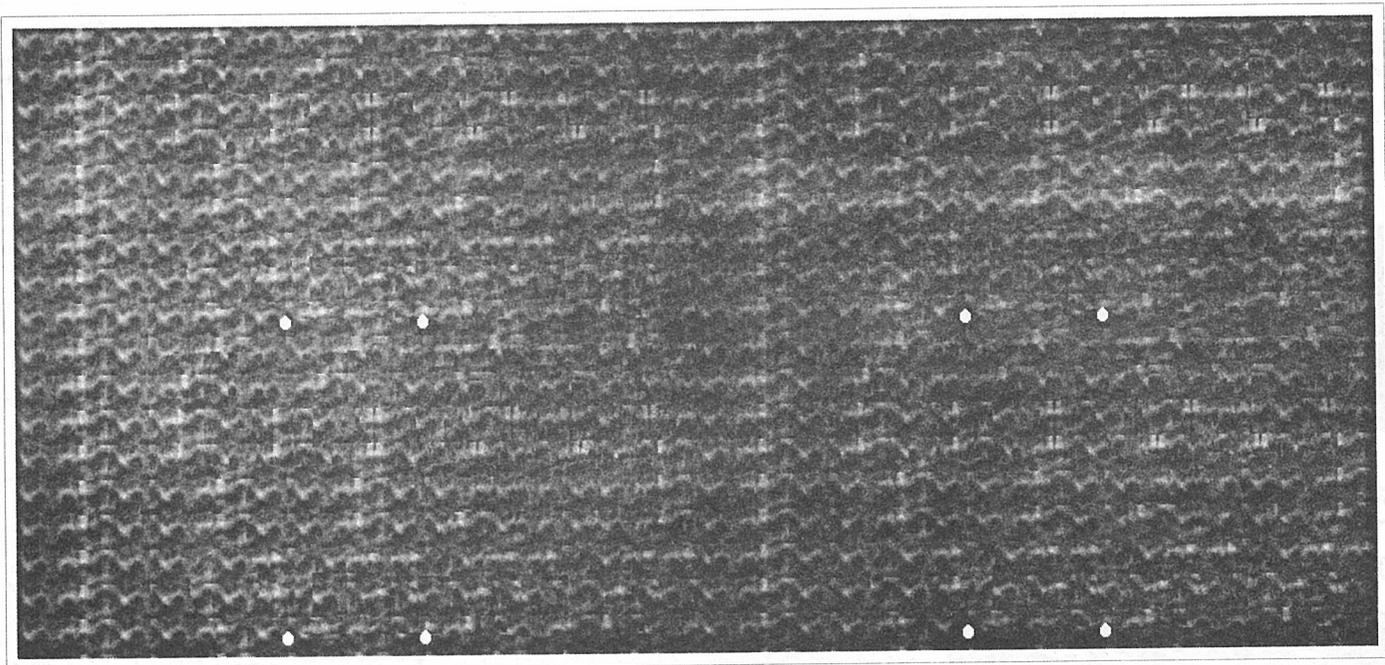



## 포스코와 유니세프가 이 자리를 채웁니다

자급도 세상 어느 글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는 돌들 많은 실리래,  
짜그리진 광릉, 비람빠진 낚은 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양이야 어떻든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의 자리 -  
축구는 아이들을 또다른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매직아이, 잘보면 보입니다. [huifan.com](http://huifan.com)을 찾으세요!



### ‘대학신문’의 인터넷 진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의 개표장에서 매우 흔치 않은 일이 있었다. 서울대에서 두 개나 되는 언론이 인터넷을 통해 개표상황을 경명보도하고 있는 풍경이 벌어졌 것이다. 당시의 선거특별보도는 높은 기사조회수를 기록했고, ‘서울대신문’은 총학생회보도 대학언론위원회와 대학기자장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서울대내 두개의 언론

최근 학내에서는 인터넷신문이라는 형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는 실시간 보도능력이라는, 인터넷신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이다. 주간지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 대부분인 대학보사의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굉장한 장점이다. 인터넷 신문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신문은 독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내주요사안들에 있어 학내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인터넷 신문의 중요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신문은 학내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록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학내기자문학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인터넷신문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거대한 정보저장소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인터넷 신문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은 너무도 많다. 다양한 시간까지 등 이어지기를 활용할 수 있는 즉각 기존의 종이매체보다 훨씬 빠

는 점, 편집이 고정되지 않아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등등.

#### 인터넷신문의 몇가지 매력

얼마 전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에서 만난 한 기자는 ‘몇 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대학신문의 위기’에 있어 인터넷대학신문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표한 적이 있었다. 분명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신문의 장점은 잠재력으로 대학언론의 또 다른 활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인터넷신문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함 내적 만은 아닌 사실이다. 서울대의 SNUnow와 함께 인터넷대학신문의 선두주자였던 건국대의 ‘아이전국’, 전남대의 ‘모란꽃’이 결국 문을 닫게 된 사실은 인터넷신문이란 체제를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 건국대와 전남대의 실패

특히, 우리가 되는 경우는 기존의 학보사가 단지 인터넷 사이트만을 오픈하여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게 될 경우, 기존 대학신문의 한계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매체는 그 운영방식에 있어 종이매체와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자유로운 개인의 역할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에 비해, 복잡하고 회교와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기존의 종이매체 운영방식은 원순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종이매체의 의사결정구조는 기자단 등 개인과 독자간의 직·간접적인 피

드백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신문에서 처벌적일 수 있다. 기존의 학보사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신문의 발행주기와 인터넷의 업데이트 주기가 동일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1주에 신문 한 부를 만들어야 하는 딱딱한 일정 속에 매일 매일 인터넷에 새로운 기사를 업데이트 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어쩌보면 터무니없는 요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안하는 것보다, 해보고 망하자’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의 같은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매체를 가진 대학이 그것이야말로 꿈을 접도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칠 ‘어려움’을 각오하고 인터넷매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자리잡아줄 수 있도록 고민하며 인터넷매체란 차라리 당위의 문제일 것이다. 최근 대학이 이곳 저곳에서 인터넷매체를 장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SNUnow에겐나 동지가 생각하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갑자기 SNUnow 경각준비위원회가 있었던 것이 생각된다. ‘안하는 것보다, 해보고 망하게 되자.’

수하하하! 야호!

huifan  
내리 만도보 인터넷 최대규모 - 매체포럼

LOADING 100% 완료